

‘티베트 역사산책’

김규현 글·사진·그림
정신세계사 / 1만8천원

고대에서 오늘까지
티베트의 모든 것

탄생설화 등 우리 문화와 공통점도 살펴

‘티베트학’ 한 획 긋는 귀중한 저작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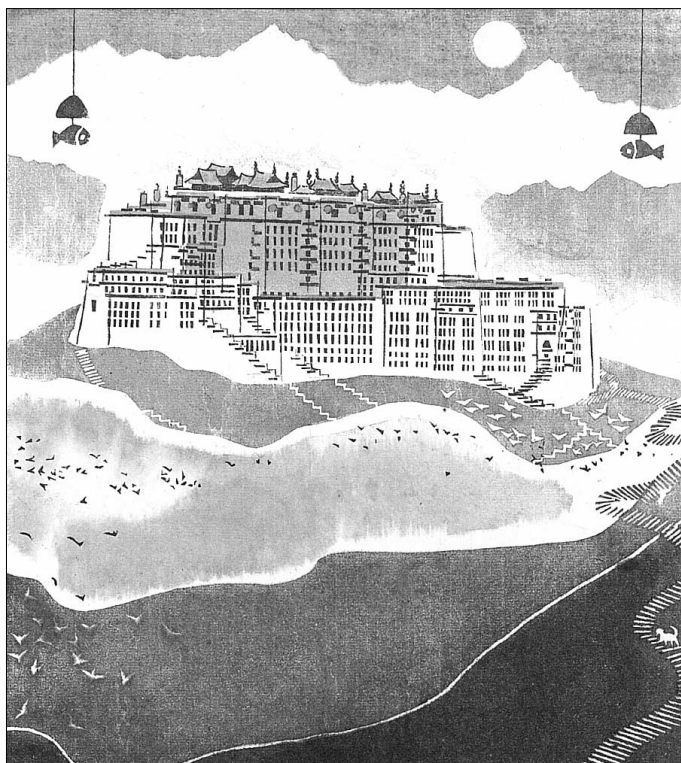
티베트. 달라이 라마의 조국, 히말라야 눈 속에 파묻힌 신비의 나라. 그러나 중국의 지배를 받는 약소국. 일반이 알고 있는 티베트는 이런 정도다. 과연 이것이 티베트의 전부일까. 단연코 아니다. 화가이자 티베트 기행가인 김규현 씨는 <티베트 역사 산책>에서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가 바다였으며, 티베트인의 조상이 유인원의 후예라는 등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티베트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그동안 많은 티베트의 불교사나 부분적인 역사를 다룬 티베트 관련서들이 있었지만 고대 신화시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티베트의 역사를 고스란히 되살리려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의 저자인 김 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티베트문화연구소를 운영하면서, 10년 넘게 티베트에만 매달려 온 진정한 티베트 연구가이다. 라싸의 티베트 대학에서 수인목판화와 탕가를 연구했으며, 1993년부터 여장자 황하 건너 스강과 티베트 고원을 단신으로 종주했다. 전생애 티베트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자는, 신비의 땅 티베트의 매력을 상품화 시키려는 저급한 의도와는 애초에 거리가 먼 오로지 티베트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티베트의 독립을 기원하며 그 온전한 역사를 이 책에서 펼쳐 보인다. 외부세상과 고립된 척박한 땅에서 스스로를 ‘유인원의 후예’라 생각하는, 초과학적 신화를 갖고 있던 ‘비리’ 민족이 티베트의 조상이다. 이들은 유인원에서 진화를 거듭하면서 스스로 꼬리를 떼어내고 인간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진화론적 유포론의 신봉자들이다. 중국의 침략을 받기 전까지 티베트는 그들 나름의 제국을 유지하며 살아 왔다. 한때는 영토가 남으로는 히

말라야를 넘어 네팔까지, 서북으로는 중앙아시아까지, 동북으로는 장안 근처까지 뻗어서 당시 세계 최대 제국 당나라를 위협할 정도의 국가로서 당당하게 군림했다. 네팔에서는 공주를 보내어 화친을 맺었으며, 당태종도 티베트인을 두려워하여 문성공주를 시집보냈다. 또 후에 잦은 반란으로 당의 세력이 약해지자, 티베트에 영토를 떼어주고 조공을 바친다는 굴욕적인 조건으로 구원을 요청했을 정도로 그 위세가 당당했다. 9세기에 들어와서 티베트는 전통 종교인 빈보교와 외래 종교인 불교와의 오랜 갈등으로 분열되기 시작하여 4백여 년간 혼란기를 맞게 되다가, 15세기에 이르러 계투파에 의해 ‘법왕(法王제도)’가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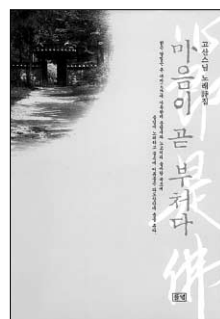
되면서 불교왕국으로 통일된다.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 조강, 라모체 사원과 함께 만다라 형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뽀따라궁전은 티베트의 법왕제를 상징한다. 티베트 불교의 특색은 활불(活佛)제도다. 몸만 바뀌어서 돌아온 법왕의 영혼을 찾아 내 린포체로 선발하는데, 이 살아있는 부처의 믿음에 의존하여 생활한다. 법왕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로서 14대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티베트의 상징으로 굳어진 것이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의 망명으로 뽀따라궁전 역시 주인을 잃고 만다. 이러한 티베트 역사를 신재하며 저자는 때때로 해박한 지식으로 유인원의 후예인 그들의 창세기 신화와 우리의 단군 신화 주몽신화 등 탄생신화의 공통점을

찾아내기도 하고, 우리의 색동무늬가 몽골로 전해진 티베트 ‘무탁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을 하는 무지개 같은 오색 실’의 변형이라는 등 서로 다른 문화권이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밝혀낸다. 특히 저자는 이 책에서 해초스님보다 1백년 전에 티베트를 횡단했던 네 명의 신라 승려에 대한 기록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등 불거리 읽을거리가 풍부하다. 딱딱한 역사 기술 중심의 역사서가 아니라, 티베트 여행가인 저자를 따라 마치 티베트 곳곳을 여행하는 듯한 느낌으로 전개되는 이 책은 국내외적으로 ‘티베트학’의 한 획을 긋는 귀중한 저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ee@buddhapia.com



◇김규현 작 ‘뽀따라’ (수인목판기법). 뽀따라는 17세기 5대 달라이 라마에 의해 완성된 13층 높이의 아름다운 건물로 티베트의 상징물이다.

시(詩)로 펼친 지혜의 법문



‘마음이 곧 부처다’

고산스님 지음 / 들녘 / 1만2천원

‘내 마음이 부처로다
마음 밖에 부처 없다
만상 모두 부처이기에
부처가 따로 없네’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은 최근 펴낸 노래 시집 <마음이 부처다>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이 책은 고산 스님이 철수를 맞아 후학들의 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詩)의 형식을 빌려 펼쳐 보인 지혜의 법문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고산스님은 출가에서부터, 염불, 기도, 참선, 결제, 해제, 방편 등 수행의 모든 과정을 주제로 노래한다. 또 번뇌, 애욕, 행복, 생사, 고락, 근심걱정 등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어로 노래하면서 깨달음의 자리, 참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정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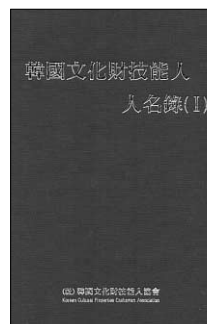
문화재기능인 현황 한눈에

‘한국문화재 기능인 인명록 I’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 3만원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서 우리 나라 제일의 실력을 갖춘 문화재기능인들을 한번에 찾아 볼 수 있는 <한국문화재기능인 인명록(1)>을 펴냈다.

이 책은 한식목공, 석공, 화공, 도자기공, 변외공, 제작와공, 조각공, 도금공, 칠공, 표구공 등 우리 시대 장인들의 경력과 연락처를 기록했다. 현재 문화재기능인은 약 2,800여명으로 이번 인명록에는 약 550명이 수록됐다. 부록으로 문화재기능인협회 임원명단도 실었다.



삶·죽음의 문제 소설로

‘물의 뱃머리’ 서로 다른 종교의 관점에서 접근

‘중음의 꽃’ 영혼행방 묘사...성불 의미 되새겨

日 스님 작가 권유 소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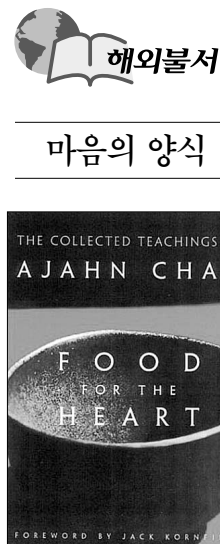
이에 벌어지는 일상의 일들을 담백하게 이야기한다.

<중음의 꽃>은 일본 동북 지방의 절을 무대로 주지인 소규도와 그 부인 게이코의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성불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 작품이다. 중음(中陰)이란 중유(中有)라고도 하며,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 성불하기까지의 이승과 저승의 중간상태를 말한다. 이 작품은 기성 불교의 스님과 민간 신앙의 무당과의 교류를 통해 죽은 영혼의 행방을 묘사하여 독자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이은자 기자

<마음의 양식 (Food For The Heart)>

‘태국 불교의 등불’,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남방불교 선사’로 알려진 아잔차(Ajahn Chah: 1917~1992) 스님의 가르침을 모은 책이다. 1960년대 중반 아잔 스메도 스님, 미국의 책 콘필드 법사를 비롯한 서구의 많은 불자들이 아잔차 스님이 주석했던 파퐁(Pa Pong) 사원에서 수행한 후, 자국으로 돌아와 남방불교를 전했다. 이 법문집은 아잔차 스님의 입적 10주기(2002년)를 맞아 책 콘필드



드를 비롯한 서구인 제자들의 합심으로 편집됐다. 뛰어난 번역과 편집으로 다양한 법문주제를 담은 이 책은 아잔차 스님 특유의 유머와 직접 화법, 마음의 울림을 주는 감동 깊은 설법을 생생히 담고 있다. 아잔차 스님은 30여년 동안이나 설법했지만 불행히도 체계적인 기록물을 남기지 못했기에, 이 법문집은 더없이 소중한 문집이 되고 있다. 책 콘필드(Jack Kornfield) 엮음. 미국 위스덤출판사 펴냄. 김재경 기자

삶과 죽음이라는 두 세계의 경계를 문화의 힘으로 떠올려냄으로써 현대 일본 문화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 권유 소규(일본 후쿠지쿠 부주지·49). 일본 최고의 문학상인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한 스님 작가로 유명한 그의 소설 두 편이 동시에 출간돼 화제다. 그의 처녀작인 <물의 뱃머리>와 아쿠타가와 상 수상작인 <중음의 꽃>이 바로 그것이다. <물의 뱃머리>는 나약한 한 인간의 죽음을 앞두고 불교와 그리스도교라는 서로 다른 종교의 관점에서 심원한 세계를 그렸다. 암에 효력이 있다는 소문이 도는 암반 온천과 숙박시설을 무대로 그곳에서 서예를 가르치는 스님 권진과 투병중인 암환자들 사

Advertisement for 'yosiamun.com' featuring a list of book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table with columns for '순위' (Rank), '도서명' (Book Title), '저·편자' (Author/Editor), and '출판사' (Publisher).

Large advertisement for 'Buddha's Wisdom' (부처님의 지혜) featuring various books and their prices. Includes sections for '불교신행의 주춧돌',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행복을 여는 부처님의 가르침', '행복한 삶에 꼭 필요한 덕목들에 대한 법문집!', '시작하는 마음', and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